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5.(일) 11:00, (지면) 2023. 11. 6.(월) 조간	배포	2023. 11. 3.(금) 오후

겨울철에도 여객선 안전 걱정 없도록 전국 여객선 특별점검한다

- 11. 6.(월)부터 11. 17.(금)까지 관계기관 합동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6일(월)부터 11월 17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6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선박검사 등으로 운항하지 않는 9척을 제외한 전국 연안여객선 146척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시행한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합동점검반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의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들도 철저히 점검한다.

*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관리실태

합동점검반은 점검시 발견되는 문제사항을 선사에 전달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12월 1일(금) 전까지는 모두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올 겨울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황진실 (044-200-57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겨울철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사진**

↑ 종사자 안전교육	↑ 선내 비상훈련
↑ 항해 관련 서류 점검	↑ 항해 장비 점검